

# 近代化 理論에 대한 研究

鄭 鎮 午

## I

近代化論議가 그 동안 世界的으로 滿開했다가 요즘은 약간 시들해진 感이 없지 않으나 近代化에 대한 分명한 概念規定이 내려지거나 近代化에 대한 諸理論이 어떠한 共通點을 中心으로 確固하게 樹立되지도 못한 것이 現實인 以上 그것에 대한 論議의 必要性은 如前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近代化라는 用語의 概念도 不分明한 가운데 進行된 世界的인 近代化의 現實과 未來에 대한 보다 確實한 展望이 現實的으로 더욱 더 要求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角度에서 近代化의 概念과 諸理論을 中心으로 近代化의 未來에 대한 問題點을 살펴보는 것도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II

一般的으로 世界學界에서 近代化論議가 한창이던 것은 五〇年代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近代化論議는 19 C 末의 社會變化理論에서 많은 影響을 받았다. 主로 傳統과 近代라는 兩分論을 中心으로 社會變化를 다루었던 Henry Maine의 “身分과 契約” “共同社會와 利益社會”를 쓴 Ferdinand Tönnies, 傳統性和 合理性의 對比를 強調했던 Max Weber, Herbert Spencer와 Karl Marx같은 19 C 進化論에서 變化理論의 基本方向을 찾았다고 하겠다.<sup>1)</sup>

그러나 19 C 進化論은 20 C 初의 世界大戰, 經濟의 崩壞, 政治的 混亂 및 全體主義의 發生에 의해서 不信되였으며 社會的 Darwinism이나 Marxism도 未來에 대한 確實한 見識을 提供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20 C 初의 社會理論은 人類와 社會의 將來에 대해 壓到的으로 悲觀論위에 樹

1) 韓培浩, “近代化論의 諸傾向,” (政經研究, 1975. 1月号), p. 42.

立된 것들이었다. O. Spengler 와 A. Toynbee 等과 같이 特定 文明의 起源, 成長과 成熟段階를 一般化시키고 이들의 衰退過程을 다뤘으며 이러한 史觀은 多分히 循環的 歷史觀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K. Mannheim H. Arendt 와 H. Lasswell 과 같이 人間共同體의 解體現象, 宗教的 價値의 弱화, 疎外와 Anomie 로의 彷徨과 같은 大衆社會의 病弊的 要因들을 世俗化, 都市化, 民主化에서 緣由된 것이라고 看做했다. 이들은 거의가 다 西歐社會에만 焦點을 두었으며 西歐社會가 일찌기 統合되었으며 人間의 自我完成에 寄與했다고 主張하는 傾向을 띄었다. 그러나 過去의 어느 時點에서 根本的인 變化가 始作되었으며 따라서 西歐社會는 轉落過程을 걷기 始作했다는 것이다.<sup>2)</sup>

그리고 50年代의 近代化理論은 19 C末의 樂觀主義와는 다른 意味의 樂觀主義였다. 卽 이들의 樂觀主義는 未來에 對한 樂觀이 아니라 溯及된 進歩에 對한 樂觀主義라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西歐社會가 到達한 現在에 滿足을 느끼고 過去에 對해 樂觀할 뿐 아니라 그 過去가 다른 社會에 對해서도 妥當性을 지닐 수 있다는 樂觀論이었다. 따라서 近代社會의 未來에 對해서는 어떠한 것도 言及함이 없으며 外國 卽 新生國에 있어서의 變化와 自國 卽 西歐에 있어서의 現狀維持를 合理化하고 近代性의 未來를 空白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50年代의 理論에 있어서는 近代化에 必須的으로 여기게 된 要素들인 世俗化, 都市化, 民主化 等은 30年代의 理論에서는 病弊的이고 社會解體를 招來하는 危險物로 看做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아서 近代化를 보는 데에는 두 가지 基本的인 視角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Marx 와 Weber 의 境遇라 하겠는데 兩者의 出發點이 된 것은 生生하고 肉體를 가진 그리고 經濟活動을 營爲하는 人間 諸 個人이었다. 다만 Marx 의 境遇에는 人間의 經濟活動에만 力點을 두었다는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反面에 Weber 의 出發點이 되는 人間 諸個人은 經濟活動뿐만 아니라 文化領域에 兩다리를 짚고 서있는 具體的이고 生生한 人間이다. 그는 歷史를 經濟的 利害狀況의 側面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理念(思想)의 側面에서 因果關聯을 追求하며 兩者를 합쳐서 歷史의 個性的인 經過를 充分히 把握하려는 것이다. 卽 歷史를 움직이고 그것에 方向을 提示하는 것은 利害狀況만이 아니며 보다 重要하고 基本的인 面으로 理念·思想을 強調하게 된다. Weber 의 社會學을 「理念과 利害狀況의 社會學」이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特徵때문일 것이다.<sup>3)</sup>

Weber 에 있어서 近代化過程은 基督教國家 文明, Islam, 印度文化圈 그리고 東 Asia 文化圈의 四大文明圈을 對象으로 삼고 있다. 이들 네 가지 文明圈의 構造는 어느 面에서 相通한 것이었다. 西歐의 境遇에는 宗教改革 當時까지 그리고 다른 文化圈의 境遇에는 19 C까지에 걸쳐서

2) Reinhold Niebuhr,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New York, 1953), P.5; T.S. Eliot, The Idea of a Christian Society (New York, 1940), p.64.

3) 韓培浩, op., cit., pp.36~38.

基本單位가 된 것은 農民村落이었다.

이 村落共同體는 血緣集團과 그 意識이 강한 影響을 받는 共同體이며 原始社會의 要素를 反映한 것이었다. 이러한 村落共同體를 支配한 것은 少數로 構成된 政治支配構造였다. 이들 支配勢力은 官僚的 要素와 封建的 要素의 混合形態를 取했으며 이러한 傳統社會의 村落共同體와 그 것을 덮은 政治支配構造사이를 連結시켜준 가장 重要的 要素는 宗教的 構造였다 할 것이다. 그러한 宗教的 構造는 政治構造를 合法 正當化시켜 주면서 同時에 制約을 加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써 村落共同體의 存續을 保存시켜주는 役割을 擔當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傳統社會에서 近代化가 進化主義의 進行된다는 樂觀論에서 50~60 年代의 近代化論은 近代化過程이 지닌 主要特徵으로 다음 9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基本的으로 相異한 傳統社會에서 近代社會로의 移行은 革命的 即 不連續的인 變化 過程이다.

둘째 單一次元이 아닌 多元的인 要因이 介在되는 複合過程이다.

셋째 한 要因의 變化가 다른 要因을 變化시키는 體系的 變化過程이다.

네째 유럽에서 始作된 近代化가 世界的으로 擴散되는 데에 基因하나 非유럽 地域內의 內性的 變化에서도 緣由되기도 하는 全世界的 過程이다.

다섯째 近代化는 長期的이고 進化的인 過程이기는 하나 近代化의 速度와 率은 漸次 加速化되고 있다.

여섯째 여러가지 水準이나 局面으로 區分할 수 있으나 모든 社會가 本質的으로 같은 局面이나 段階를 通過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일곱째 近代社會는 窮極的으로 같은 社會로 收斂되는 傾向을 보이는 同質化 過程이다.

여덟째 社會마다 變化의 速度에는 差가 있겠으나 全體的인 變化의 方向은 不可逆的인 世俗化 現象이다.

아홉째 近代化는 人間의 福利를 向上시켜주는데 寄與하는 進步的 過程이다.<sup>4)</sup>

이처럼 歷史的 過程으로서의 近代化에 대한 概念規定은 多義的이고 模糊하며 精巧性도 缺하고 있으며 「近代的」인 것과 아닌 것의 區別이 分明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共通點이 있다면 近代化를 「變質」現象으로 보고 있는 點이다. 個性 文化 價値 그리고 社會 經濟 政治構造를 包含한 社會 諸側面의 變質過程으로 規定하고 있다. 이 點에서 近代化過程은 「體系的」인 現象으로 理解할 뿐 아니라 複合過程으로 把握하고 또한 革命的인 變化現象으로 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Marx 보다는 Weber 的인 方法意識이 反映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이 當時의 近代化論은 共通的으로 世界的인 規模의 廣範圍하고 根本的인 變動을 두고

4) Samuel Huntington, "Change to Change", Comparative Politics III (April, 1971), pp.288~290.

몇 가지 制限된 概要的인 概念들이나 或은 操作的 指標들로 要約해보려고 試圖했었다는 點이다.

이러한 敘述的인 羅列式 概念規定의 가장 큰 盲點中的 하나는 그것의 基準이 언제나 西歐社會의 至今에 있다는 事實이다. 이렇게 되면 近代化가 곧 西歐化라는 公式이 지니는 西歐編向의 問題가 아니라도 다른 次元에서의 問題가 생겨난다.

西歐社會라고 變하지 말라는 法이 없는데 西歐의 至今이라는 것(或은 近代·現代) 어느 時點에다 못박아야 하느냐라는 質問에 대해서는 對答이 窮塞하다. 그 對答은 大部分 西歐의 近世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라고 模糊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歷史가 無視된 見解라고 할 수 있다. 卽 西歐社會도 多樣한 길을 밟아서 近代化되어왔거늘 어느 나라에다 基準을 잡는가도 問題가 된다.

近代化의 概念規定에서 強調해야 할 것은 近代化의 過程 그 自體의 性格이지 그 內容的인 變動의 實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概念定義가 有利한 理由는 첫째로 近代化의 歷史성과 社會마다 지닌 主體的인 變動의 可能性을 同時에 認定한다. 둘째로 近代化의 定義에다 內容的인 變動을 包含시키려는 無謀한 努力보다는 그 變動過程의 性格自體를 分明히 들어낼 수 있다. 셋째로 이렇게 함으로써 現象學的인 풀이를 할 余地를 남겨 놓을 수 있고 어떠한 巨大한 原型의 設定과 같은 硬直性을 避할 수 있다. 끝으로 傳統과 近代의 對比같은 不必要한 問題를 避하게 된다. 그리고 近代化와 發展의 差異를 分明히 가려낼 수 있다.<sup>5)</sup>

한편, 近代化의 概念規定에 앞서서 西歐에서 近代라는 말이 使用된 淵源을 따져보면 17.8 C에 와서 西歐의 歷史家들이 自己네의 歷史를 時代區分하는 데 처음으로 이 말을 쓰기 始作했는데 그 內容은 中世와 古代와 區別하여 1500年, 좀 더 仔細히는 Constantinople의 陷落과 美國大陸의 發見을 起點으로 自己네 時代를 近代(Moderna)라 指稱하는 것이었다.

이 때의 西洋의 最初의 近代化 自體가 지니는 特性은 精神史的인 側面에서는 새로운 人間主義의 抬頭와 經濟社會的인 側面에서는 世界資本主義體系의 形成이라는 두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人間觀이 資本主義라는 經濟體制와 結付되면서 自由로운 競爭과 分業에 依한 利潤의 追求라는 至上目標을 正當化시킬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西洋의 最初의 近代化의 結果로 全世界는 하나의 經濟圈으로 統合되어 巨大한 資本主義體系를 이룩하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이 때부터의 世界 社會體系의 性格은 이른 바 國際階層으로 說明할 수 있다.

그리고 그 以後의 近代化過程은 國際的인 文化移植과 國內的인 土着化(或은 適應的 變動)의 두 過程으로 說明될 수 있다. 여기에서 文化移植은 近代化에서 매우 本質的인 概念이라는 點이면서 또 土着化가 없이는 近代化의 意味가 없다는 點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例컨대 產業革命이 近代化의 核心的인 歷史的 事件인 줄은 다 알지만 이것도 結局은 文化移

5) 金瓊東, "近代化를 둘러싼 争点들," 近代化(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p.32.

植의 德分으로 일어났으면서 自生的인 努力이 뒤따르지 않았더라면 不可能했을 수도 있다는 事實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17 C 頃 西歐의 知性史와 社會史에서 그 뿌리를 내린 近代化는 그 以後 全世界로 번져나가게 되며 그 밖의 나라들의 境遇 近代化가 始作된 것은 近代라는 概念을 받아들이고 이를 基準삼아 自己네의 歷史區分을 하게 되는 그 時點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近代化라는 것은 西歐에서 近代가 始作된 때부터 最初의 國際的인 文化移植과 그에 따른 變動의 土着化라는 두 가지 相關된 歷史的 過程이라고 定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近代化는 數量面에 있어서의 乘數의 增加나 複合性 增大에 있는 것이 아니라 體系의 補強과 體系 危脅의 兩面的인 要素로서의 數量的 增加를, 持久的인 變質, 自己維持的인 變質로 만드는 力量 如何에 그 成敗가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近代化와 發展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優先 發展은 價値含蓄의인 概念이며 社會構造 變動의 過程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卽 發展은 構造變動의 一般概念의 하나이지 그 自體가 歷史性을 지니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는 歷史的 展開가 含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一般的인 含意를 받은 概念은 아니라는 立場을 前提로 發展은 社會構造의 變動이므로 經濟成長은 있어도 經濟發展은 없으며 政治變動은 있어도 政治發展이란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이렇게 볼 때 이러한 發展概念은 近代化와의 關係를 明確히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近代化는 歷史的인 概念인데 反해서 發展은 반드시 歷史的인 制約을 받지 않는 一般概念이다.

둘째로 發展은 社會構造의 變動이지만 近代化는 더 包括的인 것으로 社會, 文化, 政治, 經濟 個人, 外形的인 것, 內面的인 變化 등이 다 이에 包含된다.

셋째 發展은 價値指向的인 變動인데 近代化는 客觀的이고 主觀的인 概念이므로 보는 境遇에 따라 價値中立的인 概念이기도 하고 價値含蓄의일 수도 있다.

네째로 近代化는 어느 社會나 至今도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社會가 다 發展을 經驗한다고는 할 수 없다. 近代化가 이런 뜻에서는 發展일 수도 있지만 近代化가 오히려 發展을 阻害할 수도 있다.

그러나 發展과 近代化가 서로 通하는 側面도 있다. 特히 그것은 近代化나 發展의 要因을 생각할 때 그렇다. 國際的인 政治構造의 效果는 近代化나 發展에 모두 適用된다. 그리고 國內的인 政治的인 選擇의 效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現代化와 近代化의 關係에 있어서는 現代化는 古代나 中世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6) Ibid., pp.33~34.

있다. 다시 말하면 歷史的으로는 不可能했지만 概念上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나 近代化는 꼭 西洋 近世以後에만 있어온 變化라고 할 수 있다.

### III

進化論은 近代社會와 傳統社會를 區分하는 兩分法에 의해서 近代化過程이란 것은 傳統社會에서 近代社會로 進化하는 것이라는 理論을 펴고 있다.

이 兩社會의 差異點은 近代의 人間이 그의 自然的, 社會的 環境에 대하여 行하는 支配의 程度의 差異에 있다고 보고 있다.

進化論者들은 그 出發點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方法論에 立脚하고 있었지만은 그 歸着點은 모든 社會는 同一한 西歐的, 工業的, 民主主義의이며 거의 完全히 統合된 目的體制를 前提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開發途上國家들의 앞 길에는 이러한 目的體制를 向하는 길 以外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暗示한다. Parsons 는 이 點에 대해서 明白히 밝히고 있다. 「〈共產主義〉가 選舉民主主義 그리고 復數政黨制度에… 대한 適應을 보일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sup>7)</sup>

그동안 開發途上國家들의 知識人들에게 呪文으로 作用해온 것은 한 民族이 世界史의 舞臺에서 退場하지 않으려면 〈世界精神〉을 따라야 한다는 西風의 속삭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呪文과 더불어 一層 더한 社會學的 說得力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닥아오는 命題는 한 社會가 〈散漫한 同質性〉에서부터 〈凝結된 異質性〉에로의 發展을 完成하지 않는 限 그 社會는 解體와 後進을 免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일들이 國家形成과 近代化의 理論分野에서 學問的 카리스마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否定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오랜 歷史를 통해 西洋人에 대해 歷史的, 人種的 經驗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의 新生國 知識人들의 近代化理論은 거의 例外없이 傳統과의 衝突을 不可避하게 가져왔던 것이다.

傳統과 近代性을 對比시키는 兩分法에 있어서 이 兩者는 本質적으로 不均衡의 概念임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一般的으로 近代의 理想이 設定되고 그 다음에 近代의 이 아닌 모든 것은 傳統的이라고 規定된다. 그러나 Rustow에 의하면 “近代性은 斷定的으로 定義될 수 있지만 傳統은 주로 殘留概念으로 남아 있다.”<sup>8)</sup>

7) T. Parsons, On the Concept of Political Power, I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63, p.356.

8) Dankwart A. Rustow, A World of Nations (Washington, 1967), p.12.

따라서 明白한 概念들과 殘留概念들을 結合하는 二分法은 分析的으로 相當히 危險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非近代의 社會들 사이에도 多樣性이 存在하므로 어떤 特定한 社會를 傳統的인 理想型으로 맞춰버리는 것은 危險하며 全的으로 正確하지도 못하다. 그들은 傳統的이라는 標識를 除外하고 어떠한 것을 共通的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는 困難하다. 그들은 價値에 있어서 多樣하고 構造的으로 異質의이다.<sup>9)</sup>

또한 近代性은 傳統的 崩壞와 더불어 나타난다. 그러나 近代性은 여러 方法으로 傳統을 補完은 하지만 代置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傳統과 近代性이 相互排他的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sup>10)</sup>

近代社會는 單純히 近代的이 아니고 近代-傳統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兩者는 共存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強化시켜줄 수도 있다.

一般的으로 近代化論者들은 變化의 範圍, 時間, 方法 및 速度보다도 이것으로부터 저것으로와 같은 變化의 方向으로 集中했다. 이는 變化의 理論이기 보다 比較靜態學의 理論이었다.<sup>11)</sup>

二分法的인 發展理論은 그들이 設定한 段階들이 歷史的 進歩에 있어서의 實際的 段階인지 또는 Weber 的인 理想型인지에 대해서 不分明하였다. 近代化過程의 여러 要素들이 歷史的으로 識別될 수 있으며 그들은 共通的인 原因들에서 根源을 갖는 反面에, 한 次元에 따른 進歩는 決코 다른 次元에 있어서의 進歩와 아무런 關係도 갖지 않는다고 主張될 수 있다. 이는 近代性과 傳統의 相互排他性을 拒否하는 것이다. Bendix는 近代化와 近代性을 區分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兩分法 發想은 羅列式을 克服하려는 것인데 거기에는 傳統이 近代化에서 차지하는 位置와 關聯된 爭點이 있다. 이 問題는 두 가지 側面을 갖는데 첫째로 近代化를 하는데 있어서 傳統이 積極的인 寄與를 할 수 있다고 하는 問題이며 둘째로 近代化하는 社會가 어느 段階에 이르면 오히려 傳統에 대한 鄉愁에 젖어 그것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中 어느 것이든 이것은 傳統性과 近代性을 對比시켜보려는 兩分法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西歐의 近代化理論의 特徵은 첫째로 同感의 社會化理論(心理主義)이며 둘째는 體制進

9) Singer, ed., Traditional India, pp. X-XVii and Heesterman, "Tradition in Modern India", pp. 242~243.

10) Reinhard Bendix, "Tradition and Modernity Reconsidered",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IX (April, 1967), p. 326; Whitaker, Politics of Tradition, pp. 3~15.

11) Wilbert Moore, "Social Change and Comparative Studi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XV (1963), p. 523; J.A. Ponsioen, The Analysis of Social Change Reconsidered (The Hague, 1962), pp. 23~25.

化의 理論(制度進化論)이라 할 수 있다. 줄여서 말하자면 民族精神과 世界精神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論理範疇는 事實上 連結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sup>12)</sup> 그리고 方法論적으로 心理主義에 의해서 社會學的 準據點을 排除하는 것이나 進化論의 類推에 따라서 西歐體制의 開發途上 國家에서의 擴大現象을 經驗的 根據없이도 理論化할 수 있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非歷史的인 變化모델이라는 點에서도 共通的이다.

다른 한편 Smelso는 「어떠한 境遇라도 構造分化的 概念은 經濟構造가 近代化로 向해서 發展시킨 距離를 나타내는 尺度를 마련해준다.」고<sup>13)</sup> 하고 있다. 그러나 이 尺度는 民族의 歷史나 大衆의 意慾과 努力을 測定하는 尺度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一次元的 理論에서 構成된 非歷史的 尺度에 不過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進化論의 體制理論의 範圍內에서는 國家形成과 體制構成의 問題의 本質을 說明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點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리고 新生國 知識人들은 植民地時代에 民族主義와 더불어 民主主義도 支持했다. 그러나 獨立後에는 여러 與件때문에 民主主義가 잘 안되었다. 知識人들과 大衆과의 同一性發見이 教育의 差異때문에 어려웠다. 그러기에 「知識人들이 內的 分裂에 빠지기가 일쑤였다.」<sup>14)</sup> 이것으로 봐도 進化論의 體制發展論이 具體的인 社會不均衡을 그 理論속에서 考慮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리슨이 指摘하다시피 「東南亞細亞의 重要하고도 象徴的인 革命은 西洋支配에 대한 反抗만이 唯一한 理由가 아니다.……反抗은 그들 自身の 過去에 대한 反抗이기도 한 것이다.」<sup>15)</sup> 이것만으로도 新生國家가 <世界精神>의 具現일 수가 없다는 證據가 된다. 게다가 이들 知識人들은 어느 側面에서는 文化的 連續性을 斷絶하겠다는 決意를 보이고 있다는 點은 進化論의 範疇에 맞지 않는다는 點이다.

또한 Bendix는 「많은 近代化의 屬性들이 近代社會의 다른 屬性들과 分離되어 나타난다. 따라서…近代化는 結果적으로 近代性을 가져오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고 한다. 이것은 近代化가 世界的 過程이라고 한 假定에 背馳된다.

近代化는 單純히 西歐文化의 特殊性이 될 수 있다. 한편 아시아·아프리카 文化들에 일어나는 모든 變化들은 西歐社會에 일어났던 變化들과도 根本적으로 다른 性格과 다른 結果를 가져

12) 黃性模, “近代化理論의 脫神活化,” (政經研究, 1975. 1月号), p.25.

13) Neil J. Smelser, *Toward a Theory of Modernization*, In: Amitai and Eva Etzioni 編輯, *Social Change* (New York, 1964) p.263.

14) Gunnar Myrdal, *Asian Drama*, Vol.IV.p.2111~2112, a Pelican Book.

15) Ibid., p.2114에서 再引用.

16) Bendix, op. cit., p.315. p.329.; Eisenstadt, “Tradition, Change, and Modernity”, pp.27~28.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近代化의 全體過程은 縮少될 수 있으며 그 結果 잘 規定된 發展의 段階들이 存在한다는 假定은 妥當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近代化理論에서는 近代性에서 더 發展하는 것은 무엇인가, 有機的 結合에서 더 發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二次集團의 關係가 더 發展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對答의 根據는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미 設定된 目的體制 自體가 進化論의 窮極的 狀態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萬約에 그러한 發展(變化)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不法的(脫規範的) 暴力行使나 아노미아 또는 大衆運動에서 發生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바로 이 點에서 進化論的 統合理論은 그것의 作用限界에 到達한다. 이 事實은 〈極限原理〉<sup>17)</sup>의 體制維持(例: 兩極體制) 機能의 限界性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民形成이나 民族精神이 過程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과, 即 近代化속에서 傳統性과 近代性이라는 것과의 二律背反의 範疇을 設定할 것이 아니라 Weber 가 보는 바와 같이 近代化過程속에서 目的合理的 形態와 價值合理的 形態를 分離해서 보는 것이 妥當할 수도 있다.

낡은 社會構造와 새로운 社會構造의 乖離는 價值合理的 形態의 概念에서 評價할 수 있는 問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近代化나 民族主義 形成이라는 過程을 社會全體의 同感의 擴大形態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部分領域間的 葛藤의 產物로 보는 것이 現實에 接近하는 方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部分領域이라면 技術發達도 重要な 한 領域이다.

그러나 Marx 理論처럼 이 技術的 要因만이 唯一하고도 가장 重要的 要因은 아니다. 그리고 한 部分領域이 다른 部分領域에 比해서 빨리 變化한다는 것은 體制內的 不均衡 甚至於 葛藤까지도 發生케 하는 것은 事實이다.

社會的 事實이란 모든 社會가 그 속에 언제나 對立葛藤을 內包하고 있고 이것들은 거의 構造的 產物이어서 恣意로 除去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機能主義的, 進化論的 發展理論에서는 이러한 對立葛藤은 自動적으로 除去되었던 것이다.

많은 學者들은 新生國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非社會學的(非歷史的) 體制概念으로서 理論을 展開하든지, 文化段階 發展理論을 模寫하고 있다. 그것은 〈先進社會〉의 모델에 따른 構想에 不過한 것이다.

이와같은 傾向에 대해서 批判적으로 대하는 Louis Hartz는 斷片理論(Fragment Theory)을 내세워 모든 新生 國家는 西歐國民의 斷片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新生國에서는 西歐國民의 生活의 한 斷面 또는 側面이 絕對化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程度까지 普編化되고 下意識의 次元에까지 定着하게 되면 그것은 「거의 同時적으로 再生되면서도 그 自體가 獨立的인 테두리를 가져야 할 必要에서 發生하는 새로운 民族主義에서 變形

17) Bendix, Concepts and Generalizations in Comparative Sociological Studies, In : ASR Bd. 28 (1963) p.532 以後 參照.

된다.] 18) 卽 西洋의 斷片으로서의 民族主義가 體面을 損傷시킬 뿐 아니라 現實的으로도 맞지 않음을 發見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自意識을 가지게 되는 過程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事實的으로 보아서 歐美社會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單一 統合社會는 아니다. 더우거나 新生國家의 社會組織이나 人間關係는 機械的 乃至는 有機的 連結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傳統的 實態를 그 속에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新生國家들은 內部的 近代化過程을 통해서 具體的으로 傳統的 要素들이 어떠한 政治的 作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逆說도 成立할 수 있다.

進化論的 體制理論이나 心理主義로서는 이러한 事實을 包括할 수 없다. 그리하여 Bendix 와 같은 學者들은 統合모델보다는 下次元에 있어서의 複合主義를 考慮하는 方法을 擇하게 된 것이다. 19)

또한 進化論이 社會學的 理論으로서 採擇될 수 없는 理由는 發展概念을 單純化하는 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個別的 發展傾向들을 說明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概念들을 지나치게 一般化하는데 있는 것이다.

社會科學的 研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社會動態를 體制的으로 文脈을 單一化하는 方法이나 여러가지 範疇의 狹少化나 嚴格化는 避해야 하는 것이 重要的 일임이 밝혀진다. 相異한 側面들을 對照시키는 構成을 가지고 國民形成이나 民族主義 展開過程—近代化 過程—의 複合性과 多樣性을 밝혀야 하겠다.

#### IV

한편 Marx는 近代化를 革命的인 過程으로 把握했다는 點을 알 수 있다. 卽 社會, 政治, 法律, 經濟뿐만 아니라 文化的 價値와 意識形態까지를 包含한 全面的인 現象으로 近代化를 認識했다는 點이다.

뿐만 아니라 變化를 追求하는 勢力과 이를 反對하는 勢力間에 激烈한 葛藤이 있음을 強調한 點이다. 이러한 認識은 Marx의 近代化에 對한 視覺이 지닌 強點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弱點도 許多하다.

뭣보다도 近代化의 패턴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多樣化일 수도 있다는 點을 認識하지 못했다는 事實이다. Marx는 近代化의 推進勢力으로 資本主義의 潛在力을 過大評價했으나 後進國의 境

18) Louis Hartz, *The Foundation of New Society,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Latin America, South Africa, Canada, and Australia*, (New York, 1964) p.5.

19) R. Bendix, *Nation Building and Citizenship* (New York, 1964)

週를 봐도 부르조아지 以外的 다른 社會勢力이 近代化推進의 主動勢力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고 經濟보다 政治, 特히 革命的인 政治가 近代化에 있어서 主導的인 役割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唯物史觀에서 본 近代化는 本質的으로 부르조아時代의 產物이다.

工業化, 都市化, 技術, 自然의 征服, 傳統社會의 崩壞 및 國際化의 現象은 모두가 부르조아 지에 의한 近代化의 變革이요 그것은 共產主義를 爲한 準備作業에 不過하다.

共產主義의 使命은 「近代化를 超克」하는데 있으며 부르조아 社會의 近代化를 前進시키는 것이 아니라 「人間化」시키는데 있으며 人間을 自然에게 再統合시킴으로써 「環境의 主權者」로 還元시키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近代化自體보다도 「近代化를 넘어서서」의 다음 段階가 重要視되며 資本主義의 必然的인 衰退나 崩壞와 結付된 近代化에 대해서는 否正的일 수 밖에 없다. 金日成이 近代化에 대해 一言半句도 없었다는 點도 充分히 理解되는 일이다.

따라서 古典의 Marx主義의 理論테두리속에서는 오늘의 開發途上國이 追求하는 近代化過程이나 脫工業資本主義體制가 겪고 있는 그 나름의 近代化 또는 現代化에 대한 適切한 解明을 期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Weber는 單純한 進化理論은 迴避했으나 그러면서도 廣範하게 進化論的 테두리안에서 近代化를 把握했으며 Marx보다 어느 면에서 보다 普遍性을 지닌 近代化概念을 提示해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에 依하면 經濟, 社會的 形態의 近代化에 有利한 要因들은 그가 分類한 四大文明圈內에 比較的 골고루 分布되어 있었으며 西歐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決定的으로 重要하게 作用한 要因은 文化的 要因, 傳統이었다는 것이 Weber의 主結論이었다.

勿論 여기에서 新教倫理 하나만이 四大文明圈의 差異를 說明해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新教倫理와 新教의 制度的 發展이 關連이 된다는 것이었다. 卽 西歐近代化에 있어서 必須的인 要因을 이룬 것은 神에 대한 豫言者의 思考樣式이었다고 말한다. 人間과 神의 分離的 關係를 強調하고 神만이 거룩하며 社會의 神聖視를 排斥하는 豫言者의 神觀은 窮極的으로 忠誠과 正統性의 對象은 오직 神 하나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類의 個人主義 卽 豫言者의 個人主義를 造成하였으며 神에게만 忠誠하는 豫言者로서 社會나 君主 또는 如何한 政治, 社會勢力에도 屈하지 않고 自身の 信念대로 行動하는 人間像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個人主義와 함께 教會라는 새로운 組織은 近代의 制度로 發展하였고 憲政·民主的 制度의 基盤을 提供하였으며 特히 宗教改革後 教會組織의 合理化가 進陞되면서 共同體的 構造를 變質시키는데도 크게 寄與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構造-機能理論은 近代化가 이처럼 廣範하고 體系的 現象인만큼 그것을 說明하기 위해서는 亦是 廣範한 現象을 다루기에 適切한 理論이 必要한데 그에 副應한다고 할 수 있다.

이 理論은 復合的 相關關係를 究明하거나 보다 徹底하고 細密한 研究에 앞서 豫備的인 檢討에 必要한 指針을 提供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거나 비슷한 機能을 遂行하는 相異한 對象物을 必要로 하는데 便利하기 때문에 比較分析의 初步段階에 있어서 有用한 接近方法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一般理論으로서의 近代化理論이 樹立되지 못하고 있는 現實로 보아 優先 適切한 情報事實蒐集을 위해서도 構造-機能分析을 活用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分析方法이 지닌 큰 缺陷은 그 理論테두리 안에서는 近代化와 같은 體系變質的이고 革命的인 變化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事實이다.

Eisenstadt는 이러한 構造-機能分析의 靜態性을 脫皮해서 近代化의 ダイナ믹스를 主로 近代化를 推進하는 支配者 엘리트의 指導, 政策과 社會變化, 社會動員化사이의 相互關係로서 把握하려고 한다.

그는 近代化에의 approach로서 「方向性」을 強調한다. 卽 近代化는 社會的 動員化 또는 構造分化의 進行에 그치지 않고 繼續되는 變化를 導入할 뿐 아니라 變化를 吸收할 수 있는 社會經濟, 政治體系의 發展을 重要視한다.<sup>20)</sup>

卽 近代化를 判定하는 決定的 規準은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多樣하고 不斷히 變化하고 있는 政治的 諸要求와 組織의 움직임을 吸收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近代의인 制度의 持續的 發展 그리고 特히 政治體制的 「連續的 自己維持的 成長」의 成就도와 直結된다는 것이다.

Eisenstadt의 近代化論의 長點은 近代社會에 있어서의 「連續的 自己維持的 成長」의 能力을 判定하는 重要한 基準으로서 「그 社會의 中央制度가 어느 定度 反抗의 象徴을 吸收할 수 있는가」를 내세우고 있다는 點이다. 反抗의 運動과 象徴이 近代社會에 있어서 不可缺의 要素라는 點을 強調하여 社會의 主要制度나 領域에 있어서 近代化 推進엘리트와 社會集團 및 階層間的 衝突이 不可避하며 그것을 어떻게 吸收하느냐가 重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點은 近代化를 葛藤의 現象, 諸勢力間的 緊張과 軋樂으로 把握했던 Marx의 見解와 一脈相通하는 面이 있다.

그의 近代化認識方法은 構造-機能理論보다 動態的인 分析을 許容해주며 構造-機能理論을 包容하면서도 보다 動態的인 分析을 試圖하려는 努力이라 보겠다. 그는 近代化研究의 多面性을 認定하면서 크게 보아 두 個의 相異한 approach를 指摘한 바 있다.

20) S.N. Eisenstadt, "Modernization and Conditions of Sustained Growth", World Politics, XVI (July, 1964), pp.576~594.

첫째 近代社會 및 近代化社會의 主要한 人口社會學的 및 構造的 特徵의 分析에 重點을 두는 接近方法이요 둘째 「近代社會의 特質의 究明」에 바탕을 두면서 近代化過程을 보다 動的으로 把握하는 接近方法이다. 卽 이미 近代化를 이룩한 社會의 特質을 究明하고 再定式化함으로써 그 視覺에서 近代化의 「連續的 自己維持的 成長 또는 變化」를 밝혀보자는 것이다.

Eisenstadt 는 近代化過程의 類型으로 立憲民主政治型, 全體主義型, 土着革命政權, 東歐·中東·南美獨裁體制型, 스페인·포르투갈의 權威主義體制型 그리고 脫植民地 新生國型 등 6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類型設定의 基準이 되는 것으로 特定 社會內의 結社體의 性格, 近代化出發의 時點, 近代化推進엘리트의 態度 그리고 近代化過程의 時間的 繼起를 들고 있다.

時間的 繼起라 함은 近代化過程이 急速的으로 進行되느냐의 如否와 一時的으로 모든 分野에 걸쳐 發生하는 境遇와 反對로 經濟分野에서 始作해서 政治, 社會分野로 浸透하는 段階的인 過程이냐를 區分하는 것이다.

그 理由는 經濟歷史的인 範疇과 政治理念的인 範疇를 합쳐서 分類를 위한 카테고리로 使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西歐, 美國, 英聯邦을 합쳐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類型속에 日本, 러시아, 帝國 獨逸까지를 包含해서 이들을 近代化過程의 第一局面으로 分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第二局面의 近代化過程을 겪고 있는 것으로 中南美, 革命政權, 前植民地 新生國을 통털어서 取扱하고 있다. 이 分類方式은 無價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分類方法의 基本原則인 相互排他성과 被消耗性을 犯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Huntington 은 近代化와 政治發展을 區別함으로써 極端的으로 말해서 近代化가 오히려 政治發展보다 政治不安과 政治衰退를 招來할 수도 있다는 示唆를 던져주고 있다. 如何든 그는 近代化를 亦是 近代的 社會의 歷史的 經驗의 再定立을 통해서 認識하고 있다는 點에서 Eisenstadt 와도 接近方法을 같이 하고 있으며 歐州大陸, 英國 그리고 美國 등 세 가지 類型으로 區分해서 近代化패턴을 把握하되 그 基準으로 合理化된 權威, 分化된 政治構造, 大衆政治 參與를 適用해서 三類型을 比較하고 있다.<sup>21)</sup>

또 한편 兩分論에 대한 批判이 提起되면서 近代化를 이룩한 西歐社會와 一部 非西歐社會에 대한 詳細한 歷史的 究明으로 焦點이 移行해갔으며 近來에는 近代化에 대한 一般理論을 指向한 高度의 抽象化作業이 追求되고 있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完熟된 近代化 理論은 없다.

至今까지의 研究가 이것으로부터 저것으로의 變化方向에 焦點을 두었지만 近代化過程의 範圍 時間的 調節, 方法, 變化의 速度와 率에 대해서는 아직도 未開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至今까지의 近代化論은 變化에 대한 理論이라기 보다 靜態性的 比較研究라는 制約을 脫皮하지

21)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못하고 있다. 이러한 認識方法을 止揚하기 爲해서는 近代化過程을 體制變質的인 大規模의 歷史的 變革으로 認識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이는 辯證法的 接近法이라고 呼稱할 수가 있을 것이다.

開發途上國이 겪고 있는 廣範한 變化는 確立된 構造內에서 制限된 選擇을 통한 變遷이 아니라 構造自體가 變質되는 體制變革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 價値體系, 行動樣式, 過程 및 制度가 直接的인 進化를 겪기보다는 連續-葛藤-變化의 辯證法的 展開를 통해서 屈折과 斷切의 變遷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視覺에서 近代化를 把握할 때 近代化過程을 阻害하고 있는 不均衡의 問題가 가장 核心的인 것으로 提起된다. 近代化는 바로 이와같은 葛藤을 吸收하면서 恒久的인 變質過程을 推進해갈 수 있는 能力을 갖추게 될 때 實効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葛藤은 普遍的인 現象이며 그것을 管理할 수 있는 構造的 配列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安定속에서 變質을 追求해 갈 수 있다.

## V

以上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特히 標準 美國社會學의 틀에서 試圖된 近代化의 研究는 오늘날 全世界가 겪고 있는 變化의 經驗을 제대로 理解하고 說明하는데 도움이 되는 知慧를 더 以上 提供해주지 못하고 있는 感이 든다. 그리고 標準 美國社會學의 弱點이나 限界들은 거의 共通의이다. 그것은 主로 機能主義의 理論의 틀이 지니는 問題點과 實證的인 調查研究나 數量的인 技法에 依한 分析의 弱點들로 焦點이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接近法에서 取하는 基本的인 假定들을 둘러싼 爭點들을 간추려 보면 첫째 이러한 思惟를 이끌어주는 바탕이 되는 思考類型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近代性의 基準을 잡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생각의 硬直性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이에 따라 近代化의 理論에서 變動의 單一方向性和 社會體制의 同質化 或은 收斂을 假定하는 傾向이 있다. 卽, 變化의 多樣性을 否認하는 指向이다. 셋째, 硬直한 近代性의 途述이나 近代化의 同質化를 說明하는 基準의 選擇에 있어서 概念化가 恣意的이다. 넷째, 이와같은 恣意性의 源泉을 찾아가면 其實 그것은 西歐偏向의 自己民族中心主義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섯째 이와 平行해서 近代化研究의 分析單位가 늘 國民國家社會로 限定되어 있고 國際的인 脈絡이 輕視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前述한 近代化에 대한 客觀的인 定義가 받아들여진 다음에는 現象學的인 接近이 要請된다고 할 수 있다.

이 境遇에 觀察者는 近代化라든가 近代性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專有權을 가지고 恣意的으로 規定하는 代身에 概念規定은 事實上 各 社會의 代表되는 사람들이나 一般市民들이 내세우

는 것과 知覺하는 것의 組合으로 이루어진다는 事實을 是認하고 觀察者의 할 일은 그 社會成員들 사이에 相互主觀적으로 共有되는 共通한 뜻을 充實히 叙述하는 것일 따름이다. 다음에 分析家는 그 自身이 知覺하는 바의 近代化라는 現象과 社會成員들이 共有하는 것에서 共通된 本質的인 要素들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이를 普通 理念型에 依한 社會現象의 分析·解釋 說明이라 한다.

더 나아가 前述한 極面論理가 發展段階論으로 連結될 수 있는 것은 論理的인 것이나 進化論의 體制論과는 달리, 그리고 集團化理論과도 區別되면서 下位次元의 複合的 過程으로서의 社會過程의 研究는 各己 次元들이 서로 相補作用을 할 수 있다는데 그 利點이 있다 할 것이다. 卽 變化의 全體過程은 諸要素間의 相關的 葛藤의 軌道로서 어느 方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動學의 機制는 여기서 發見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近代化의 現代史的 意義는 적어도 그 共通分母를 찾는다는 뜻에서 目標內容이 自立持續의 統濟成長이라는 點을 指摘했는데 여기서 이런 共通目標가 지니는 바 含意가 매우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近代化의 初期에 西歐社會가 追求하던 人間的인 目標과 比較해 볼 때 너무나도 엄청난 距離를 發見하기 때문에 더욱 重要하다. 적어도 그 氣風에 있어서 初期 近代化의 人間的 意義는 스스로의 將來를 손아귀에 넣었다는 實存的 確信에서 찾아볼 수 있다.

近代化를 物質文化的 側面을 떠나서 精神的, 心理的 文化的 側面에서 그 爭點을 찾아보면 物質이 人間的 삶의 質을 높이는 手段은 될망정 그것이 目的이 되는 때 사람의 삶은 그 價値를 果然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問題가 생긴다.

더구나 사람의 價値를 가능하는 基準마저 外形的인 所有物에 依해서 左右된다면 이는 一次元的인 人間的 모습 그대로이다. 그리고 現代의 資本主義的 技術文明은 이를 助長하는 傾向이 있다.

일찌기 20 C 初 思想家들이 主張한대로 近代化는 人間이 그의 人格을 充分히 實現시킬 수 있는 보다 더 近接한 共同體를 崩壞시킨다고 主張할 수 있다. 近代化는 大量生産과 大衆社會를 實現하기 위해 人間的, 個人的, 精神的 價値를 犧牲시킨다. 이러한 見解는 60 年代 後半에 開發途上國 知識人들이 提起하고 있다.<sup>22)</sup>

그리고 倫理的 獻身沒入이 없는 效率性의 追求는 쉽게 目的을 達成하려는 便法主義를 자아낸다. 여기에 거짓된 人間關係가 생겨나고 健全하지 못한 人性이 싹튼다.

近代化를 이룩하고자 하는 根本的인 動機가 사람의 삶을 豐饒하게 하는데 있다면 그 삶은 單純히 物理的인, 量的인 增大로만 그칠 수가 없다. 精神的인 質的인 向上이 따라야 한다.

22) 閔俊基, 韓國政治發展論 (乙西文化社, 1975) p.29.

또한 테크놀로지라는 制度는 官僚組織과 손을 맞잡고 效率性, 合理性, 生産性을 強調하게 되는데 이것이 몰아올 수 있는 人間의 疎外는 Weber 가 憂慮한 바 近代化의 한 무서운 結果인 것이다.

“人類의 다만 한 部分이라도, 靈魂을 갈기갈기 찢어가는 이 무서운 過程, 다시 말해서 官僚의 生活樣式이 至上의 優位를 차지하는 이 支配關係에서부터 自由롭게 하기 위하여, 그 體制와 맞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課題이다.”<sup>23)</sup>

끝으로 新生國家들이 거의 共通으로 民族主義라는 社會統合規範에 立脚하고 있음은 이제 歷史的 事實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어떠한 面에 있어서도 民族主義는 西歐 諸制度와의 接觸에서 오는 不均衡社會變化過程의 產物인 것이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民族精神의 發生은 西歐에서 市民階級の 形成이 民族精神 民族主義를 發生하게 했던 것과는 달리 市民階級の 基盤위에서 發生한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도 近代化問題에 있어서 主導勢力으로서의 知識人問題가 市民階級 代身に 언제나 焦點이 되어왔음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바이다. 이 事實은 勿論 아시아 地域에서는 商工業的 基礎가 弱했다는데 基因한다.

그리고 「政治體制 또는 國家의 基本目標는 그 社會의 窮極的 價値로부터 演譯되어야 한다.」는 社會保存의 公理라는 立場에서 볼 때 社會의 窮極的 價値는 바로 具體的 政治目標가 아니기 때문에 그 價値를 〈政治化〉할 必要가 남게 되며 이 必要를 充足시켜주는 이데올로기를 이 公理는 民族主義라고 處方할 수 있다.<sup>24)</sup>

卽, 近代化過程에서 政治發展을 이룩하는데에는 民族主義가 가장 適切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23) P. Sites, Control and Constraint (New York : Mcmillan, 1975), p.108에서 再引用.

24) 李洪九, “社會保存과 政治發展,” 近代化 (서울大學校出版部 1981) p.174



**Summary**

**A Study on the Theories of Modernization**

*Jung Jin-O.*

In study of theories of modernization, we need phenomenological approach.

And the goal of modernization is commonly self-supporting economy. The material conditions of life must be accompanied by the spiritual elevation and mos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lso need nationalism.